

# 나의 행랑채에 대한 조사(弔辭)

My funeral address about 'Hangranchae(Servant Quarter)'

최상철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우리 집 행랑채

엿그제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날, 내가 살던 고향집 행랑채가 그만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전혀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이미 달포 전 고향집에 들렀을 때, 행랑채의 병색이 완연한 걸 보고 왔기 때문이다. 기둥뿌리는 여기저기 썩어 있었고, 지붕 어느 구석에서 비가 샐는지 벽에는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심한 얼룩이 저 있었으며, 흙이 탈락된 외벽 사이로는 마치 갈비뼈 같은 외(隈, lath)가 훤히 드러나 보였던 것이다.

어쨌든 서둘러 그 주검을 치워야 했다. 그렇지만 이미 아침나절이 한참 지난 터라 마땅한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갖은 수 소문 끝에 마침 쉬고 있던 작은 포클레인 한 대를 불렀다. 포클레인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발 앞에 내팽겨쳐 있던 기다란 나무토막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뒤집어보니, 아! 그

것은 그 볼품없어 보이던 행랑채의 상량(上樑)이었다.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시(某時) 입주상량(立柱上樑)”이라고 정갈하게 쓰인 그 상량문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아뿔싸……!” 하는 탄식을 내뱉고 말았다.

방금 어느 하나의 생명체가 졸(卒)한 것 아닌가? 설사 곡(哭)은 못할지라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었다. 서둘러 예(?)를 갖춰다. 상량문의 발원대로 “지금까지 가운이 번창하고 집안 식구들이 그 대와 더불어 행복했었노라.”고 하는, 나지막한 묵념과 함께 간단한 작별인사를 드린 것이다.

나의 어린 시절 그 어느 한 때, 짓궂은 술래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숨겨주던 보호자 구실을 하기도 했고, 그 어느 땐가는 먹음직스러운 벌꿀단지 때문에 내 발걸음을 자꾸만 끌어들이던 허드레 광이기도 했으며, 또 가을 타작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집안의 든든

한 쌀뒤주이기도 했다가, 때로는 집안 대소사의 작업장으로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족의 알뜰살뜰한 사랑을 받던 일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내 뇌리 속을 스치며 지나갔다.

“아! 맞다. 그랬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한동안 잊었던 추억을 반추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요란한 굉음을 내지르며 포클레인이 한 대가 안마당에 당도하였다. 천만다행이었다. 비록 부지불식간에 이성을 하직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우리 집 행랑채는 간단한 작별까지 받으며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언젠가는 닳쳐오고야 말 생멸(生滅)의 순환을 피해나갈 수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에 대한 집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집요했던 것 같다. 오죽하면 옛날부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 사물, 즉 물(水), 돌(石), 소나무, 구름, 거북, 학 등을 십장생이라고 하여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았으랴?



제주 빌레뒹 동굴

그 기원조차 까마득하다. 우리 인간의 최초 주거지로 알려진 동굴에 새겨진 그림이나 고구려 고분벽화 등에서 우리는 그 시원적인 욕망의 흔적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긴 그게 어디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었으랴? 무지몽매하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렁이나 곤충은 물론, 꽃과 나비 등의 동식물이라고 해도 그 본능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강제로 도살장에 끌려 나가던 개나 돼지, 그리고 소들이 처음에는 발버둥 치며 버티다가 마침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그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툭툭 흘렸던가 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의탁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 건축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다행히 운 좋게도 나는 우리 집 행랑채를 아름답게 고이 보내드렸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그러한 말년의 복조차 타고나지 못한다. 아니 건축물이 폐기처분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은 그저 단순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학살현장 같다.

그래도 다들 한때는 누군가의 알뜰살뜰한 보금자리였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무주택 서민 가장의 가슴 벅찬 첫 동지였을 수도 있었으며, 또 때로는 그 어느 누군가에게 재산증식의 아주 요긴한 수단으로서 그동안 삶의 환희와 기쁨을 한꺼번에 선사해주는 알뜰한 살림꾼이기도 했겠지만, 그러한 과거의 빛나는 공적 따위는 거의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다. 어떤 때는 정말 저 머나먼 아프리카 초원에서 벌어지는, 마치 ‘동물의 왕국’을 지켜보는 것 같다. 커다란 포클레인이 아가리를 벌리고 달려들어 한순간에 폐가를 쓰러뜨리고 나면, 그 자욱한 흙먼지 사이로 마치 까마귀나 송냥이 떼처럼 일단의 무리들이 줄지어 모여든다.

어느 높은 기둥이나 서까래, 도리 중에서 비교적 쓸 만한 것을 먼저 골라서 차에 싣고 달아나고, 어느 높은 낮은 가스통이나 보일러를 떼어 고물상에 넘기겠다고 달려들고, 또 어느 높은 그저 깃이겨진 목재라도 건져서 뿔감으로 쓰겠다고 그 잔해(殘骸) 사이를 연신 기웃거린다. 그것이 본디 우리 건축의 타고난 운명이라면, 참으로 가혹한 팔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는 사지를 여섯 토막으로 찢어 죽이는 육시(六弑)가 최고의 극형이었지만, 그것도 철거되는 집에 비하면 시쳇말로 ‘깎’도 되지 않는다. 잘리고, 털리고, 바싹지다가 급기야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 소음이 진동을 하는가 하면, 석면 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가 하늘을 자욱이 뒤덮는다. 그렇게 한때 우리의 소중한 삶터였던 집은 모두 다 잔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 집 행랑채는 참으로 천운을 타고 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어느 이름 없는 시골목수가 앞 뒷산 잔솔가

지를 베어다가 둔탁한 망치로 푹푹푹 지어 올렸고, 신분조차 번듯한 안채나 사랑채가 되지 못하고 그저 허름한 행랑채로 평생을 버텼지만, 그래도 다른 어느 집들처럼 포클레인이나 망치로 무참하게 농지처참 당하지 않고, 이른바 천수를 다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기억을 고스란히 뒤로 한 채, 황망히 먼 길을 떠난 우리 집 행랑채와의 이별이 자꾸만 더 애뜻해진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우리 집 행랑채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이 멧쩍은 조사(弔辭)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대로 인해서 한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노라.” ㄷ

최상철은 전북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전주에서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설계작품으로는 「애일당」 「주남현」 「이중재」 「삼락헌」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내 마음을 두드린 우리건축」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이 있다.